

자료 A-34 (동아, 92.7.25.)

第 21893 號

【第 3 種郵便物 (가) 認可】

92.7.25 동아

사법제도에 미칠 혼란 고려 「國科搜공신력」 인정

大法院 姜基勳씨 원심합정 배경

在野 결과不服... 재심절차 밟기로

대법원 재판부는 25일 서울에서 열린 원심합정 회의에서 강기훈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강기훈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기훈씨 측은 "유서대필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재판부에 대해 불복을 표시했다. 강기훈씨 측은 "유서대필사건"이 단순한 대필이 아니라, 강기훈씨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참여한 복잡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기훈씨 측의 주장에 대해 "유서대필사건"이 단순한 대필이 아니라, 강기훈씨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참여한 복잡한 사건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강기훈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기훈씨 측은 "유서대필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재판부에 대해 불복을 표시했다. 강기훈씨 측은 "유서대필사건"이 단순한 대필이 아니라, 강기훈씨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참여한 복잡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강기훈씨 측의 주장에 대해 "유서대필사건"이 단순한 대필이 아니라, 강기훈씨를 포함한 여러 사람이 참여한 복잡한 사건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강기훈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자료 B-24

성명서

범죄자는 강기훈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다

진실을 짓밟히는 우리의 고통은 한순간의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영원할 것이다.

1992년 7월 24일은 대한민국 법원이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선포한 날로서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오늘 정해진 각본에 따라 우리 사회의 양심과 진실을 세번제로 짓밟았다. 그러나 강기훈에 대한 대법원의 이 의기양양한 유죄 확정선고는 실은 우리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원 자신에 대한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1년여에 걸친 강기훈 재판을 예의 주시하여 오늘에 이른 우리는 이제 그간의 모든 환상을 씻어내어 냉철한 눈으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의 본질을 똑똑히 직시하게 된다. 우리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접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단언한다. '유서대필사건', 그것은 백골단에 의한 강경대 타살사건 당초부터 모든 국가기구의 동원을 계획하면서 꾸며낸 정치적 음모였다고.

검찰과 법원은 분명히 강기훈의 결백함을 알고 있다. 이 사건의 기록을 보는 누구나 그렇듯이 그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신창이가 된 정권의 목숨을 지탱시키기 위하여, 거짓투성이인 국가기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 막무가내로 무고한 한 인간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검찰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그리고 법원의 이 잔학행위를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눈 뜨고 번히 강기훈의 결백을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들 국가기관의 횡포 앞에 불가항력을 통감해야 하는 이 현실이 암흑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무법천지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우리는 지금 무법천지의 암흑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암흑과 무법천지 한 가운데서 불가항력과 맞서 강기훈의 무죄를 외치는 우리의 이 쓰라림은, 오늘 유죄를 확정된 대법판의 승리만큼 결코 초라하지는 않다. 우리는 이제 더욱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기 위하여 다시 전열을 가다듬을 것이다. 그리하여 "범죄자는 강기훈이 아니라 검찰과 법원이다!" 이런 외침이 온 세계 방방곡곡에 우렁차게 메아리치는 그날까지 진실의 승리에 이르는 대장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강기훈은 무죄이다. 우리는 정권의 주구로 전락한 법원의 판결이 강기훈을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소리 높여 외친다. 강기훈은 무죄이다!

진실을 짓밟히는 우리의 고통은 한순간의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짓밟는 자들에 대한 역사의 심판은 영원할 것이다.

1992년 7월 24일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선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고난 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단국대학교 총학생회, 대한상공회 정의실천사제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불교 인권위원회, 사회선교를 위한 복음주의 청년연합, 서울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서울 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수임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인권위원회,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자료 B-25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내 용 : 강기훈군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1992. 7. 24

강기훈 형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며

우리는 오늘 강기훈 형제에 대한 대법원에서 내려진 상고심 판결에 대해 참으로 개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재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재판은 강기훈군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이 나라의 양심에 대한 재판이기도 하였습니다.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정권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키 위한 여론조작으로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해온 한 젊은이를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매도해왔던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1심, 2심에서의 불합리하고도 편파적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최고권위를 가진 대법원의 판결에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건강성은 사법부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건강성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재의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였다 할지라도 진실을 바로보는 역사의 물줄기는 결국 정의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강기훈군과 관련된 사건의 종결은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땅 모든 양심인들의 노력은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며 우리 모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자료 B-26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성 명 서

강기훈씨 상고심 기각에 대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강기훈씨에 대한 재판이 대법원에서나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길 촉구하는 글을 지난 20일 재판부에 보냈다.

그러나 오늘 재판에서 강기훈씨의 상고가 기각됨으로, 지금까지 그의 무죄를 확신하고 석방을 기다리던 모든 양심세력에게 허탈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유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리고 필체가 다르다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증언과 전문 필적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무시하고, 비양심적인 국과수 감정원 김형영의 허위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는가?

더 이상 재판부는 권력의 시녀 노릇을 멈추고, 진정으로 이 사회의 양심과 도덕이 존재하는 올바른 국가를 만드는 초석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본회는 이 땅에 한 사람의 양심도 꺾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싸워나갈 것이다.

1992년 7월 2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찬 국

□자료 B-27

성 명 서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 석방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1부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에게 집행유예(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뇌물감정사건은 국가의 사법질서를 혼란케 한 사건이었으며, 국민들에게 허탈함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이 사건 발표시에 국과수의 허위감정으로 인한 피해자가 수백명이 일시에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중대성은 특히 김형영씨가 바로 작년 5월 투쟁의 와중에서 분신했던 김기철열사의 유서필적과 강기훈씨의 "유서사건"의 필적과 같다는 허위감정을 했던 장본인이었고, 그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세인의 주목을 끌었다.

본회와 "강기훈씨 유서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양심세력의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회 등에 청원서를 보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땅의 양심을 단호하게 유죄판결을 내리고, 그 결과 강기훈씨는 지금 3년형의 실형이 확정되어 대전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번 추석을 즈음하여 김형영씨를 석방한 것은 우리 시대의 고질화된 사법의 불공정성을 또 한번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본회는 재판부가 이 땅의 양심과 허위를 바로 구별하여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

1992년 9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 권 위 원 회
위원장 김 찬 국

변호인 제출 필적자료

증제 1. 터사랑 청년학우회 창립대회 방명록	15-2 강기훈 옥증면지
2. 이력서	15-3 "
3. 전고조 원주지회 방명록	15-4 "
4. 대유공전 원고(일부수록)	15-5 "
5. 승의여전 메모	15-6 "
6. 출장비 청구서	15-7 "
7. 성남민청련 상황일지	15-8 "
8. 녹취록	15-9 "
9. 속초동우전문대 자료봉투	15-10 "
10. 수원민청련 창립대회 방명록	16-1 연 하 장
11. 한국사회와 자본론 강의 책표지	16-2 "
12. 속초동우전문대 · 청주서원대 필적	17 민중당 성동지구당 보고서
13-1 명함	18 「장미의 이름」 책속 메모
13-2 박동희 자술서	19-1 오오나시 감정서
14-1 명함	19-2 "
14-2 고상만 진술서	20-1 수첩 복사본
15-1 강기훈 옥증면지	20-2 "

증제 1 터사랑 청년학우회 창립대회 방명록(김기철)

전현철, 조국교직원 노동조합, 성남지회 지회장

청년들의 빛나는 기상과 뜨거운 열정만이 조국의 희망찬 내일을 견뎌줄 수 있구나!

증제 1 호

정일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성남지역위원회 위원장.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청년학우회의 탄생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주, 민주, 통일, 기치를 든
 숲아라 터사랑 청년학우회여
 민중해방의 앞잡이로
 (성남민청련, 고선부장 한재덕)

열심히 해가
 사슴에
 씨의 고통에 황사일꺼다
 -서희-

증제 2 이력서(김기설)

(인사서식제 1호)

사 진	이 력 서		
	성 명	김 기 설 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서기 1984년 11월 27일생	(만 24세)
주 소	경기도		
호적관계	호주와의관계	본인의 부	호주성명 김 경 연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 령 청
81.2.16	광탄 중학교 졸업		
83.7.13	수도자기공업고 "증(비)전과"자퇴		
82.8.15	대한 검정고시 합격		✓
88.6.23	육군 제 8736 부대 재대		
89.10.29	선용 섬유 입사		
90.3.4	선용 섬유 퇴사		
90.7.24	주) 다다 인력서비스업 입사		
90.11.14	퇴 사		

김기설 인

증제 3 전고조 원주지회 방명록(김기설)

김기설 인

이영여 자우: 명우: 동인의
 김기설 10월 10일
 김기설 10월 10일
 김기설 10월 10일

김기설 인

또	그	어	한	경	해	등	원	어	려	한	사	리	전	이	전
대	유	공	권	원	고	의	원	고	의	원	고	의	원	고	의
기	철	수	탁												
이	기	철	수	탁											
2.	대	유	공	권	원	고	의	원	고	의	원	고	의	원	고
의	원	고	의	원	고	의	원	고	의	원	고	의	원	고	의
바	라	모	순	시	각	은									
사	회	법	구	사	하	는	기	내	예	장	중	간	계	간	그
기	어	기	공	보	공	이	가	는	간	간	의	사	리	보	유
준	재	간	건	은	로	이	해	시	각	가	세	를	3	가	지
로	구	용	한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	수	한

한 12

건	개	예	서	장	수	보	중	상	개	이	차	격	하	는	위	상
바	그	것	의	사	명	별	의	의	의	에	대	한	은	것	은	것
적	고	장	부	의	각	명	은	그	중	한	결	의	서			
이	기	다	장	수	있다	채	는	어	제	계	격	의	의			
시	은	직	법	원	한	이	로	직	인	시	야	가	장	장	필	
은	로	써	그	등	안	정	권	의	장	중	한	어	대	한		
의	정	적	인	회	실	은	우	여	하	여	논	의	자	제	는	
은	안	하	거	나	거	단	우	한	정	전	문	계	의	장	은	
은	회	석	관	하	애	부	화	해	양	한	노	태	우	장	은	
장	장	은	별	어	사	스	있	게	되	었	다	2	러	나		

한 5.

증제 5 승의여전 메모(김기설)

A

아(21)
 "주거전 재건축 기공대리"
 이후시 각종등단등단.
 "지대(21) 시공대리"
 또한 "시" 각종등단등단.

증제 5 호

4. (21)
 상안중대 분매사 후, 모천기 기공대리.
 이후 시 (1980년경)
 전농도행업 / 구연 기공대리
 연시대 (21년)

26. (21)
 반동(21) 북방정역 기공대리
 시공대리.

증제 6 출장비 청구서(김기설)

증제 6 호

청구서
 청구자: 김 기 설
 청구내역: 출장
 청구액: 25,000
 청구일: 91.3.30
 비고: 차비(14,000) 식사비: 4,000
 예비비: 5,000
 지출확인: 김기설

총 무 국

증제 6 호

증제 7 성남민청련 상황일지(김기설 등)

상 황 일 지

1989년 7월 22일 수요일

담 당	총무부장	위원장
정 부	김기설	김기설

전국 및 지역 동향	공대위 회의 A9(지회사무실)
집행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복나겟 사내집회 사거도록. • 행정 협장보(수배중) 어머신 죽어가셨으니, 위르차 찾아가야야.

부 서

분 과

○ **교선부장**. 1/24 동원학원이 현재 노년 4명, 시년 4명 되어 있음. 아직 불투명한 회원이 있는지 확인해볼 예정이니 1/24 지도자회의 마련후도록 (특히, 성남전체와의 연락을 맡을 전격원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선부장은 불대장을 해어 항상 유리회원으로 같이 있도록). 또한 자기가 담당할 회원들에게 두배비로 전달도록.
 ○ **지정부장**. 회비 미납자에게 연락할 때 잘 모르는 관계이거나 어찌구번 집행위원들에게 도록으로 요청도록.

○ 각 분과장은 어제 분과모임에 나오지 않은 자기담당회원들 두배비 18명을 전달하고, 1/24(토) 오전 10시까지 친구대로 모이게 하도록.

비 고 (본부 등 연락사항)

• **종민청 총회(오후서) - 원요일(21일)로 여기**
 * 위원장이 내린 정안으로 글쓴하지 않고 바로 직청총회로 갈 것임.

증제 7 20

상 황 일 지

1989년 7월 23일 토요일

담 당	총무부장	위원장
정 부	김기설	김기설

전국 및 지역 동향	김주사업회 반쪽지 (누적한 여기)
집행 위원회	• 각 부서.분과장은 자기 책상 및 서류함을 정리하도록.

부 서

분 과

<p>24부 - 양사교원(24부)</p> <p>24부 회의(24부)</p> <p>24부 회의(24부)</p> <p>24부 회의(24부)</p>	<p>24부 - 양사교원(24부)</p> <p>24부 회의(24부)</p> <p>24부 회의(24부)</p> <p>24부 회의(24부)</p>
---	---

비 고 (본부 등 연락사항)

○ 모두 3시. 직청 총회.

상 황 일 지

1989년 9월 24일 0요일

담 당	총무부장	위원장
정 부		

전국 및 지역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교조 탄압 저지와 노동양법 교양법 철폐를 위한 제 1차 투쟁대회 (오후)시 연세회
집행 위원회	

부 서	분 과

비 고 (본부 등 연락사항)

1989년 9월 24일 0요일

상 황 일 지

1989년 9월 25일 1요일

담 당	총무부장	위원장
정 부	교선	노분

전국 및 지역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일 집회로 (여행·하동·리그·하양·2부/1차·선정회·노분·부상·노분/1차)
집행 위원회	

부 서	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선부 - 야사 교선 (오후)시 · 교선부 회의 (오후)시 · '근주의 노래'를 대자본으로 예비적 작성 토론 (교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적자 (노분) · 사무실 벽면의 대자본 등을 정리하도록 · 1/24 3번대: 동서대 대자본은 정리 · 1/30 문번대리에 대한 스니 대자본 · 1/3 성민회 9월 19일 회고 · 1/30~1/31 전청대련 간부추천회 참가선정 관련 대자본 등

비 고 (본부 등 연락사항)

1989년 9월 25일 1요일

상 황 일 지

1989년 9월 26일 수요일

담'당	총무부장	위원장
정 교선		김영철
부 충주		

전국 및 지역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위 (2차 10시) 노준위 사무실 공과회 과과자 실무자 여서화외 2부서 연합등 상향수령 의호보현 4차위 2부서 (대청위 사무실)
집행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7시 : 대충로비로인도 아로너.

부 서	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우의 노래'를 대자날로 작성도록(교선). 타자기로 낼릴 수 있는지 확인도록(당직). 영문책장 입학관국이 마전계학 입학(충주) 신발장, 개발두자로 3부 판내계학(충주). : 시인1번에, 강석관대에 내용을 받은 '말'지 할로 사내에서. 	

비 고 (본부 등 연락사항)

• 오전 11시, 사무실에서 '충주신문' 오이기로.

상 황 일 지

1989년 9월 27일 수요일

담'당	총무부장	위원장
정 교선		김영철
부 재재		

전국 및 지역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향 노준위 창립 1주년 기념식 2부서 → 충주 연기.
집행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부서-과장은 두개비 1부서에 계계는 자기 체계의 공제사항 존안 후 출구 서쪽함에 넣는다.

부 서	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선부 : 용번대리 program을 순자날로 순제도록. 각 부서 각종계학을 통역시킬 수 있는 관리방안을 연구 등록. 	

비 고 (본부 등 연락사항)

• 과역위 총회 2주 8시. → 10/6 (수) 2부서에 속개.

상 황 일 지

1989년 9월 30일 토요일

담 당	총무부장	위원장
정 부	교 선	원 장
	노 문	김영

전국 및 지역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정·현 각부수련회 (30일 日) · 동인연원. 석교조각수. 바려주야반. 철레등거하. 설산 노등지
집행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 변 대외 (오후시 경위대)

부 서	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부장. 수도세 (₩1,500) · 차상비 (₩1,000 정도)가 나왔으니 준비하도록. 수도세는 1층 미장원 이준바에게 납부하되, 계산방식을 분명하게 따지도록. · 교선부장. 위원장이 10/2(A) 오후에 출근할 예정이니, 영퇴를 지장장선여 명기하도록. 	

비 고 (본부 등 연락사항)

상 황 일 지

1989년 10월 3일 토요일

담 당	총무부장	위원장
정 부		원 장
		김영

전국 및 지역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사당 청년학우회 창립총회 (오후시 경위대)
집행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 7시. 성민청 9A 쉼터.

부 서	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주의노대' 대자본 · '사무실비준' 대자본 제작 사, '외연회 식도' 대자본 제작, '인도록' 백번의 대·소자본 제작 시 내용으로 제작상도록. (교선·홍두). 10/8(日) { 노동자 등반대회 } 참가추구건. 민청련 12차총회 	

비 고 (본부 등 연락사항)

1989년 12월 5일 수요일

전국 및 지역동향	
집행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상이야기 강타II.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전 7시에 공판정구에서 출퇴근 함시다. 한겨레신문 가짜 장영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르, 단체, 최원, 주변친구 등에 친박인 연락함 함시다. (시원).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래리도 및 노래지도자로 준비함시다. (고선). 실문지, 카세트, 판매자료 등을 준비함시다. (비서).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에다 돈을 찾아, 기탁함에 따르면 치류함시다. 김을 변리함.
본과 및 각 부서	
동양	
미지부	<p>화의</p> <p>김영민</p>

1990년 1월 12일 수요일

전국 동향	
지역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전 9시, 연석회의.
싱근자 회의	<p># 오후 2시 30분, 국제도전. ("90부상반기 정세전망과 투쟁방향")</p> <p>전면연임을 발간을 확인 : 나갔으면 각종 자료와 함께 부속은 극락 함시다 → 내일 나온다고 함.</p> <p>항동현. 평강. 연우에서 자료대리금 발송함시다.</p> <p> $\begin{aligned} \text{연우 5부} &: 1,500 \times 0.8 \times 10 = \text{₩ } 12,000 \\ \text{연우 5부} &: 1,500 \times 0.8 \times 10 = \text{₩ } 12,000 \\ \text{연우 20부} &: 1,500 \times 0.8 \times 20 = \text{₩ } 24,000 \\ \text{연우 10부} &: 2,000 \times 0.8 \times 10 = \text{₩ } 16,000 \end{aligned}$ </p> <p>₩ 40,000</p> <p>① 원세 상부, ② 기탁금 700,000원이면</p> <p>→ 이하병원, 노년환제 방문</p>
각 분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황반 (오후 8시). 신입반 (오후 7시).
사 임준 비 팀	
중앙	<p>한영민</p> <p>김영민</p>

답: 박에게 학생회도 학생 인원으로 잡다 등등 숙이될 다른 회박 될서
등이 오게 됐다.

질: 또 학생회도 학생 인원으로 잡다 등등 숙이될 다른 회박 될서
등이 오게 됐다.

답: 26일이다. ^{북한지본제}
이 책은 이번 시인 백만다냐. 학회 비니본제도 있나
미청 선처 민사로 2등 계약이 되어 있어 학교 측에서 나가리
나가게 되어 있다. 해서 미청 측은 이익을 보이기 위해 비싼 값에
팔고 있다.

질: 노년 북측은 어느 정도인가.

답: 작년 편지는 중국에서 영을 깨어 뒤집까지 가는 때 경우였다
문제는 미적 호기 역시 모르겠다.

질: 학생을 만나면 우리가 비싼 예금은 해주면 안 좋겠는가.

답: 대비 된 듯이 걸다가 약하기 때문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입장도 강하게 있다.

질: 김문갑 이인사 에버선 자리-우-가

답: 작년 일이 그때부터 분해 되었고 나오는 것 보니까...

질: 학생회 미미 독립을 사주했다는 생각은

답: 자기들이 적성이다. 박성나 학생회편이라 박출은 과 전가 리기비...

질: 주대비트는 학금이 나오는가

답: 수합도 반반이므로 독립행사한다. 장학금도 지급되는 편은 아니
이다. 입학식도 의문스럽다.

전대협은 백만학우의 지해와 혐의에 의해 건설되고 발전하며 운영되는 조직이자 식민지 조국의
현대사에서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이년 이상을 활동하는 유일한 대중자치 조직이다.

김: 30만명 정부가 동의 전출대 머리로 ~~다들~~ 되어있지 아니면
안부도 정재혁: 정재혁은 공전부 머리로 되어있지... ~~다~~

정재혁 머리로 되어있는데 뒷자리를 해야 된다. 정재혁은 정재혁의
디리인이다. 내일 아침에 리우 리까지 함시다
부담은 내가 안하면 된다.

서: 내일 김문갑 리우가 있다.

김: 정재혁 기동자리를 두는가?

서: 정재혁 선동은 잘 못한다.

김: 지금까지 나온 정재혁의 문제를 가지고 동맹정운에 사건을 심중 처리야
한다. 된다.

서: 의문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 심중은 있는데 문제가 없다
부담 문제를 쫓고 의문사 문제까지 파악하려 한다.

서: 의문사 문제를 부각시켜 분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 농지제 문제를 부각시켜서 사각화해서 민주세력이 동맹 발전해야 된다.
기동세력이라 파레지럼 세력이라 마찰이 같은 여력이다.

서: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부당사건을 하다가 악고있는데 이 사안을
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부당사건 잘 모호수가 있다. 아니다. 학생회위원에서 악고있고

부당이다. 분당사건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이 부당사건이다. 따라서

이 사건을 확보해야 한다.

서: 부당사건 문제를 언제 터뜨리든간에 책임을 확보해야 한다.

동맹이 시크트 어둠과 인정을 학생이 잡혀가 있다. 이 학생들은

동맹에서 개정경영리장 이들을 안 수 있다.

예속을 반대하고 반미자주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나의 토지에 나의 손으로 씨를 뿌리고
나의 손으로 밥을 지어 먹으려는 농민들의 주인됨을 향한 노력과 같다.

이 사장님이

김: 부당한 이야기를 꺼냈다. 거정적 증거를 가지고 왔는지 같다.

서: 경건경찰이 이쯤만 보면 된다. 년도만 알아도 된다.

김: 이쯤이 어느 국경을 들어갔는지 알지 못한다.

김: 경건경찰이 부당하게 정재용과 싸움을 했다. 이 사장님

은근대면 모든 부정을 이야기해주실 것이다.

김: 경찰이 있다 보니. 몇 년 만에 봤던거지. 안경 안경안에서

안경이다. 연루자를 알아야 한다.

서: 이왕이면 전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김: 부당성 문제는 정변례를 통해 1~2시간 구할 수 있다.

김: ~~이런데~~

이런데 서울에서 이야기 되었다. 원주에서 홍준 원주 신원우 원주 김

과 또 다른 10명이 있었다.

이러다가 자꾸 내용지 않을 이유?

김: 무슨 당장 () 부장

서: 양심선언을 했는데 2년은 2년 김대중한테 안고 갔 하겠다면 나중이다.

민중 대연합의나서 김대중이 사변처럼 내세움 것 이태수가 경정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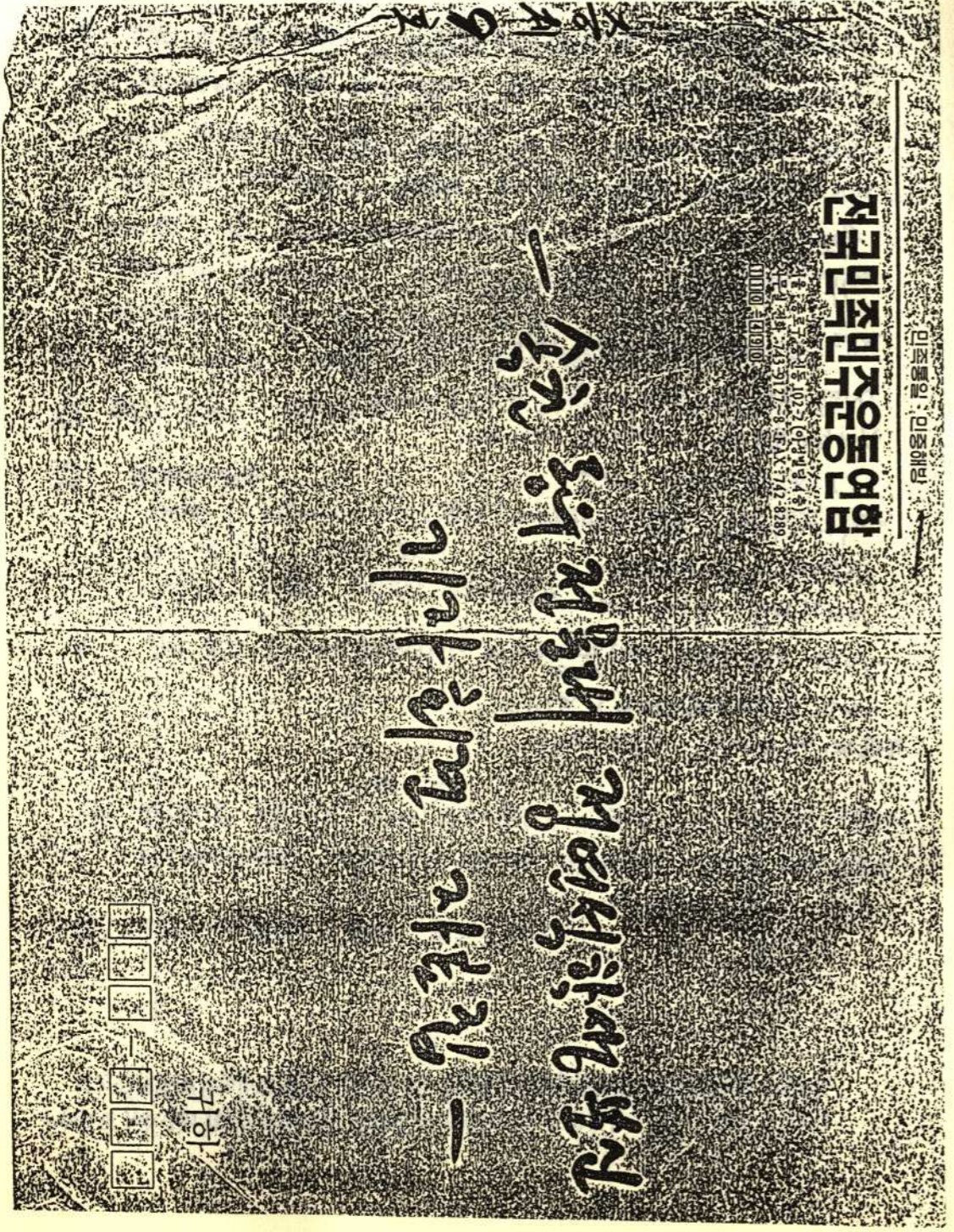
김: 다중이 정경라를 씌웠. 한 것이 아니다.

친미독재정권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은 권력의 폭력으로부터 민중의 생존과 권리를 되찾으려는 정당한 활동이다.

정재용 할아버지 비민주적인 항사연결과
 재벌비리다 문제가 되어 항사연결과
 김대중 씨를 공격하고 있었고 상황이 있었기
 항사연결과 비리다 비민주적 인은 하하하하하하하
 문정임이 동구한 비리다 비리다 (이태수님)
 가. 김대중 씨를 안국로 보냈다
 재벌측은 이태수는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김대중 (속. 김대중)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데리고 김대중 씨를

전대협은 백만학우의 지해와 힘에 의해 건설되고 발전하며 운영되는 조직이자 식민지 조국의 현대사에서 자주·민주·통일을 강령으로 하여 1년 이상을 활동하는 유일한 대중자치 조직이다.

증제 9 속초동우전문대 자료 봉투(김기실)



증제 10 수원민청련 창립대회 방명록(김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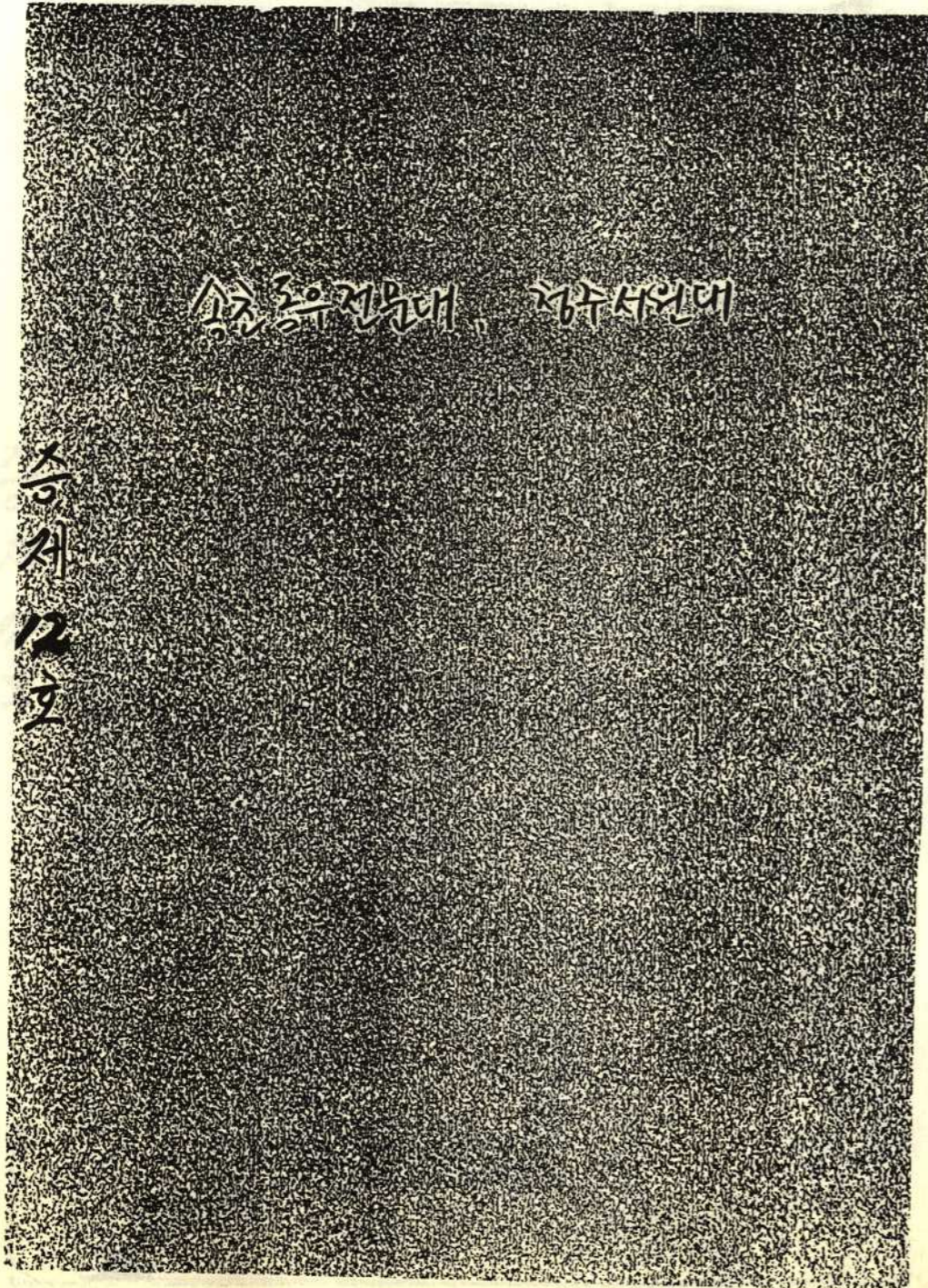
김기실 (성남 민주화 운동 1972년 12월 12일)
 김기실 (성남 민주화 운동 1972년 12월 12일)
 김기실 (성남 민주화 운동 1972년 12월 12일)
 김기실 (성남 민주화 운동 1972년 12월 12일)
 김기실 (성남 민주화 운동 1972년 12월 12일)

중계 11 한국사회와 자본본강의 책 표지(김기철)

이
제
11
호



증제 12 속초동우전문대 · 청주서원대 필적(김기설)



증제 13-1 명함(김기설)

증제 13-1

민족통일 민중해방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다함께>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of Korea

김기설

110-490 서울시 중구 동소문로 101-2 아산 B/D 4층
전화 : (02)743-9127-8 FAX : 742-8289

DATE

자술서

이름: 박 동 희 (26세)
소속: 구간 전국 노동자 신촌 (전) 성남 리3강
주소: 경기도

증제 13-2의 2

본인이 김기설씨를 만났던 계기는 1990년 1월경부터
구간 전국 노동자 신촌 성남 리3강은 맡아서 일하던 중
간혹 8월경에 김기설씨가 성남 노동자어린
간사직 드이오면서 부터였다
성남 노동자의 집과 노동자 신촌 성남 리3강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는데 본인과 김기설씨와는 나이가 비슷한
관계로 평소 가깝게 지내왔다.
이후 김기설씨가 성남 노동자의 집을 정리한 이후에도
노동자의 집 근처 향미 다방에서 시너차려 만나 차를
마시기도 하였으며 1991년 초에는 전학연락을 받고
향미다방에서 만나 전학연락에서 일하게 되었다면서
연락을 하라고 전학연 평함을 꺼내 그 자리에서 소속
이름은 김기 설이 건네 주신것을 받아 보관하여 8월경에
최근 필적 문제로 논란이 되자 즉시 도장이 찍혀서
1991. 5월 23일 전학연측이 제출 하였다.

박 동 희 

진술서

성명: 고 상 만
소속: 동우 전문대학 경영과 89학번
직책: 생

증제 14-1.2의 2

이 명함은 지난 3월20일 김기설씨에게
동우전문대에서 김신자살을 기도했던
정면석 (사진. 89)씨의 김신사건 조사단
으로 서준식 위원장님과 함께 오셨던
후 김기설씨가 숙초시 생활동소지
고철.양양.숙초 야권통합 사무실에서
김응삼씨에게 써 주셨던 명함입니다
이 명함을 보관해오던중 6월30일
의 사무실 직원 김현자씨에게 건네
받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증제 14-1.2의 2

고상만 민중민생노동연맹
1.회로 부장
김 기 설

증제 15-1 강기훈 유증면지(강기훈 앞, 86.4.2.)

○ 물관이다. 하지만
수출에 대한 대개 생각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라
가장이나 면에 대한
좋은 기분이 아닌 것은
그동안 이주 생활에
자신의 향이기에 대한
전혀 좋은 것은 아니다.
이제 진정한 안이
있지 않음도 같다.

○ 기성에게

오랜만에 편지 잘 보내네. 서로 걱정하는 생활이...
이런 편지, 안지, 문은 정말 좋았어. 생활이...
잘 있어. 애매하게 하는 편지, 안지, 문은 정말 좋았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제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는 정말 좋아. 이 편지, 안지, 문은 정말 좋았어.
이제는 정말 좋아. 이 편지, 안지, 문은 정말 좋았어.
이제는 정말 좋아. 이 편지, 안지, 문은 정말 좋았어.
이제는 정말 좋아. 이 편지, 안지, 문은 정말 좋았어.

○ 신명지. 참 좋은 편지.
이 편지, 안지, 문은 정말 좋았어. 생활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제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는 정말 좋아. 이 편지, 안지, 문은 정말 좋았어.
이제는 정말 좋아. 이 편지, 안지, 문은 정말 좋았어.
이제는 정말 좋아. 이 편지, 안지, 문은 정말 좋았어.
이제는 정말 좋아. 이 편지, 안지, 문은 정말 좋았어.

1 3 4

우편 봉합 열서

1 3 4 - 0 0

취미 강기훈



받는 사람

강기훈 앞

3 0 0 - 3 1



대한항공

증제 15-1

증제 15-4 강기훈 옥증편지(강기훈 앞. ??)

4 19 5 7



대한민국 우정청

30031

북천암

우정

152-0000

영등포구 역동로 152-0000



우정청 우정사업본부

보내준 편지 잘 받아보았다.

그 동안 내가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과정을 무시한 결과로 중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 것은 문학의 편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까? 후~ 고등과정은 강해진 형태의 커뮤니케이션과 이 안에서 한정된 자유, 비정형성, 일상성 등으로 인해 판권의 위상이나 보다는 내면화, 적응성을 길러 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것들의 직접적 피해자(?)는 일어난 바깥 우리들이지. 네가 알렸던 '사회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지도 모르겠다. 학교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대체로 최선의 것을 밖에서 알려주기를 알았다. 그것도 효용이 사상이나 윤리적인 것들만. 영항 무리야 해야 할 것은 그러한 때들이 개별적인 측면에서는 주체성의 확립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땅의 현실에 대한 정치나 사회 비판적 의의나 하는 우리들의 역할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사회는 자기가 서있는 위치에서만 자신을 관찰해보자 한다. 그 하 다른 것 힘은 것,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체로 어쩌면 회피적이라 한다. 모든 것이 과정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완결한 것이나 움직임이 없는 실체로 생각해보는 습관이다. 사회 기성세대 (물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의 문제점은 여기에 있으며 그 테두리 속에 머물러 있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속이 휘둘러 들어간다. 주체성! 생활이라는 한 세상살이를 안다라고 표현 하건가?

정당한 판권은 곧 지양성이다. 세계를 보아도 반란과 거부 그 자체였던 것이다. 테 그랬을까? 기획자들도 이를 리에 바친 인간들의 비행을 해동이라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지식과 실천이야 말로 인간의 행의 본질이겠지! 대동이라고 본다. 소박해나하 나 이리미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는 매우 기분을 주었다. 내를 위해서야 '나'이기에 나는. 별개의 것이 아닌 하라니

증제 15-6 강기훈 옥증편지(어머니 앞. ??)

우편 종합엽서

보내는 사람



610-□□

받는 사람

14/4

홍영주 (대신받음)

133-□□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증제 15-6

5일 아침

10시까지

14/4

아버님. 어머니께

그 동안 건강하셨는지요.

얼마전 본의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끼쳐 드리는 주위에, 대단한 걱�택거리를 만들기가 한 것 같아 속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 때문에 아니라 그 동안, 단연적으론 제 걱정을 접하는 것이 매우 답답할 것 같아서 몇번이나 편지를 보낼까 했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실행에 옮기질 못했습니다. 부친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리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이곳은 몇가지의 것들만 제외한다면 그렇게 어두운 곳은 아닙니다. 현하러 비발의 리얼한 시냇물 보다는 어느언이든 나은 건도 있는 듯 합니다. 매우 일상적이며 거의 비슷한 부들이 계속되고 있고 하루가 어떻게 지내는지 스스로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가까운 거니 부들도 하고 근무하신 보신라등에 익숙해 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름은 일은 아끼 다루리더있고 편한이 마음없이 조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인은 내가족이 두꺼지고 관습이 바뀌게 보는다는 사실 이리하는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한사도 제가 독이나 어쩌지 않음이나 걱정이 이상히 있으나 안음과 하는 부친님과 주위 친척은. 친구들의 편지들은 타나왔다는 것이 먼저 미안하게도 하고 이리저리 까지 할것은 언제나 제 이리후에 또 하나하나의 행동까지 속이 편한이 있는 것들 많음으로 생각합니다. 기쁘게도든이나 근황이 지우지는 것도 하지도 안았으며, 하지도 안었습니다. 이것 하나도 자식있게 부친님에게 많음으로 씁니다. 언제나 부족했던 내 자식을 채찍질 하오서 몸개념은 주부라든 단정하 있습니다.

영광이 내사든 데, 주위들은 날씨안이나 벌어들은 부친님이나 주위분들의 마음은 생각하면 본의아니게 끼쳐 드는 걱정을 어떻게 반하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데 이안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 제 걱정은 미치고 편하게 그고 건강하게 좋은 사안은 하였으며 합니다. 그러면 기리살도 예도 지극 연락드리겠습니다. 소라 훈 들린.

친: 러시아, 우카 크이나. 최은명은 '최희리는' 단답기 위해 '발아니' 못했습니. 다른 걱정은 부부드립니다.

영사타 사리 3, 4 주부부서리(서리) (사기) 매수부서리 기리(서리) (서리)

증제 15-7 강기훈 옥중편지(강은옥 앞. ??)

강기훈



이제부터는 필적자료로 제출합니다.

1
3
3
-
□
□

강은옥 앞

강기훈

6-1-0000

강기훈



강기훈

강기훈

· 보고싶은 銀 표 이 에게

· 답장이 좀 늦었으나, 보내준 편지들은 잘 받았다. 글씨나 문장력도 많이 늘고, 성격도 많이 명랑해 졌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이제 안전한 분이구나. 한동안 운동장 주석이 만개했던 냇갯도 지고 안산이를 문용 북게 울려퍼던 진달래도 그 자취만이 고스란 남아있을 뿐이다. 언뜻은 여기서 잘 지내고 있구나 하후 1시간씩 운동도 하고 3개 교락 제때에 강해사를 하면서... 좀 무요하고 ~~즐거움~~ 즐거움이 없는 생활이기는 하지만, 그 강박관념으로 채우려 노력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지내고 있다. 근음에는 近代市民革命史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심도있게 다룬 책이라서 그런지 매우 많은 시사점을 받고 있었다. 특히 로베스티에르의 공판정치의 미의 몰락 과정 (인물 보충 부분)은 역사발전과정에서의 제 문제들을 기층민에게 새겨 넣을 수 있는 계기로 활용될 것 같구나. 그의 철학공부도 병행하고 있는데 흔히 실생활과 관련이 없거나 너무 어려워서 접할려고 해도 부담스러워 두는 선입관과는 달리 현실생활에 있어서 事務의 관련성, 물질의 운동과 법칙적 발전을 과학적으로 해명함과 동시에 사회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일정한 세계관을 갖게 해주는 수위면서도 매우 필요한 것이 철학 같구나. 물론 철학도 제 유다에 의해 근대성이 상이 하기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서 있는 것은 하나 뿐이지. 앞으로 더러각도로 생각해 볼 기회가 있겠지? 고등학교 시절은 다른 여러문제를 생각에 넣지 않더라도 일생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때였다는 것을 언뜻 가끔 느끼곤 한다. 하지만 지혜 라는 데우리 속에 모든 가치를 두어야 하고 이러면 더 풍부하게 고려해야 할 '삶의 가치관', '세계관'의 문제는 차후의 것으로 치부하는데 현행 교육제도의 맹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을 물론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 보다.

강은옥



국립중앙도서관

강은옥 (대신받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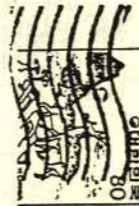
받은 시일

9-01-01

보내는 시일

강은옥

87.5.9 610



우편물

아버님 · 어머니께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밤 잘먹고 크게 아프거나 하는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1부 6월 때 접어들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벌써 지나가 버린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았던 세월이었
 습니다. 부모는 밖에서 버려지 못하고 지켜보아야만 하는 아들의 독만
 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여러가지의 귀찮았던 문제로 인해 부모님을
 더욱 괴로우셨으리라는 것은 생각이 많은 저 이리만 진각하고도
 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와는 땀은 달랐지만, 그동안 여러가지
신에 관한, 그리고 우를 들려주고 있는 주변환경에 관한, 가족에 대한
~~부~~ 생각들을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저에게는 주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달리 생각해 본다면, 중을 하여 부유한
생을 영위하는 사의 다기 보다는 사들 가운데에서 남 조중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생 수 있는 지를 바라고 계셨으리라는
생 해 줍니다. 세대의 조약한 흐름 속에서 섞여들어 같이 환
 버리는 사람이 아닌 주변사람에게 조중의 이해라도 관이려 애쓰는
 그러한 제 자신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당강의 부모님의 고마한
바를 저버리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상황 조건이 보의 아니게
 마음먹은 바와는 다르게 운이 버대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자부으로서 몸을 일려서... 건강 하십시오.
 이만 결입니다.

1987 5. 7.

4/36

소자 기훈 필립

증제 15-9 강기훈 옥중편지(어머니 앞, ??)

이복희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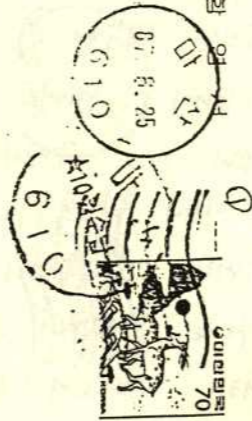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133-□□

강기훈 옥중 (대외편지)

우정사업본부

710-□□



우정사업본부

강기훈 옥중

우정사업본부

어머님에게. 그리고 아버지께

어제 이제 다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몇지 적습니다.
필요한 책은 "북한 이후의 현대사 (일원)" 외에 "한국 재통일의 다
동법론리 (아름)" "니카바라 혁명사" "일본자본주의 출현사 (아사)"
추가해서 부탁 드려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넣었던 운동화는 한쪽 280mm 다른 한쪽 265mm (제네라
틀라 왼쪽이겠음) 왼쪽이 났기 때문에 이동하다가 매우 난해한 듯
합니다. 요즘에는 한쪽만 신고도 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시대가
어찌저찌로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오실때에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니우면 되겠지요?)

오빠 말씀이 매우 더위면 관계로 아침-저녁으로 땀에 범벅태기가
일부러긴 하지만 그래도 독서는 잘 되는 편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매일살개의 문제는 여전히 어머니께서
구체라되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가능성을 현실로서 정리시키기위해
많은 기간동안은 계속 필성을 낼 생각입니다. 사람이 어느 한 곳에
달두해서 그 흥미를 깨뜨려 그것을 내리치고 또한 실현을 통해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물론 실현을 통한
검증의 백이 백의 문이라 한때 ~~의심~~ ~~의심~~ ~~의심~~ 기는 하지만요.

기초이에게는 편리를 한 동안 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할 생각이요
은복이에게는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아직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을 이용해 보려고 하고 나가서 계속해야 겠지요
항해-승미 간의 최소한의 교류를 위한 노력이 서로 (너에게 1차적인
책임을 갖지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희나 은복이가 약간의 행동 부자유를 느끼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유신교육세대에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은
치열한 현실경험의 부족과 세계관 (자신과 자산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철학적 인식)의 부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나 주변 친들
의 도움을 받았을때 위기는 잘 견디는데 (소위 학교에서 공부하고 하는 것) 현실에서의
거침과 구체적 맞닥에 부딪혔을때 당황해하며 너털하게 해야 할지름 모르고
날카로운 무례의식 속에서 자기를 무방해하고 반성해 보기 보다는 그냥 대충
말렁 함이고 그날 하루피해를 무사히 보내기를 바라는 현실안주의 습관이
늘어 버렸던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러리 부딪어보고 고민하진
등이나 친구들끼리 편지 보내고 바란채 노닐고. (꼭 학생들에게서만 있는 습관)
곳에서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체가 관계하고 있는 영역 (죽음, 직업등)

이복희 9

증제 15-10 강기훈 옥증편지(어머니 앞, ??)

우편 봉합엽서

보내는 사람

□□□-□□

강기훈 옥증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강은옥 (대신받은)

1 3 3 - □ □



매개 필적은 반드시 쓰세요

15-8 f
15-10 f

증제 15-10

부모님께

늘서기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하시지요. 어머니는 항암제 두차례
찾아오시기 때문에 별 걱정이 되시는 듯하지만 (?) 아버님의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입니다. 몸도 잘 리십시오. 운동하는 저번에 뺐을때
뺏을 때는 인상은 조금 미끄러웠을 듯 한데, 한하리 그러한 기라를
갖는 것도 재래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날 있어
지나친 걱정 하지 않 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서 들
부탁드립니다.

- ① 한국에서 (동명 渡部亨) ② 해방전투사의 인식 (하길사)
- ③ 1905년 혁명 (옥두 김민혁) ④ 중국현대혁명사 (청사)
- ⑤ 중국혁명사 재평가 (거음) ⑥ 세계노동조합운동사 ⑦ (백산)
- ⑧ 세계노동운동 역사 (하나) ⑨ 추미혁명의 재해석 (백산)
- ⑩ 세계적 유대인의 자본주의 (리길 S. Amin)
- ⑪ 라틴아메리카 변혁사 (백산)

⑫ 변증법적 문학이론의 전개 (창이) ⑬ 아리랑 2 (죽인)
평제적: 능률적 증명 과 리 해 3리정도 나누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티도록이면 차제대로) 2사 티 니 부 의 충 탄 지 능 원
⑭ 호 판 문 화 이 론 (라후미) 부탁드립니다. 자식으로서 타 는 못 하
어려나 누 기 치 는 것 같 습 니 다. 환 몰 린

p.s. 한 서울 객 시 에 올 라 나 승 희 이 게 도
인 의 전 체 주 심 사 로.
여 름 양 한 도 꼭 게 부 탁 드 림 니 다

김열필

19
23

4 2
19 근

증제 16-1 강기훈 연하장(강은옥 앞. ??)

등적의

610-□□

주소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133-□□

강은옥

86.12.20 610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과이다



시련은 | 잘 치루었는지 ...
편지라 | 못해 미안하구나
좋은 시간이 되길 ...

기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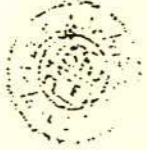
증제 16-2 강기훈 옥증편지(강기천 앞, ??)

2009년 1월 2일

610-□□

강기훈

보내신사관



보내신사관

300-37

강기훈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하오니

즐겁고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빈다.

문

2009년 1월 2일

중계 17 민중당 성동지구당 보고서(강기훈)

중계 18 장미의 이름 책속 메모(강기훈)

보고서 원본

분류기호	SC II	보고서		수신 민중의당 중앙당 선전5
문서번호	민가-3-83-1			발신 " 서울 성동지구당
처리부서	중앙당 선전5	지시	문서번호	남자
처리기한	3/16 ~ 3/20	시	민가-3-83-1	1988. 3. 16
시행일자	민중의당 선전5	근거	제 목	'민중시대' 민중시대 및 성동지구의 제보
보존연한		기		

보고서작성자 강기훈
 위원장 사무국장 집행국장
 검토
 계 목 '민중시대' 민중시대 및 성동지구의 제보

민중의당 성동지구에서는 3월16일 '민중시대' 11호를 자체평가하고 이를 평가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는 지난 2월 27일(정확하지는 않음) 중앙선전외회의에서 '전국적 동선망' 구축의 필요성과 민중시대평가의 실시와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각 지구당에서 수행하기로 하였던 것에 대한 의무이행과, 이번 11호에서 몇가지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정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민중시대'가, 명실상부한 '전국적 대중정치신문'으로서의 자기기능을 다하기 위해 단위별 평가, 대한제시는 매우 필요하며 타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동지구당에 처하고 있는 상황은 마지구당과 마찬가지로 심무의 하중과 여담의 부주동에 고통받고 있고 삼시적인 정치토론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처음해보는 민중시대평가도 이외의 구멍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난감토론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미정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는 것이 그 한계이리라 생각합니다.

내 용 -----

먼저 '민중시대'의 위상을 건 조권원이 공유하고 난 후,

- (1) 민중시대가 대중의 입장에서 민중의당의 대의를 명확하게 신건선포하고 있는가?
- (2) 과 경치적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의 옹박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평가의 기본틀이 되며 부분적으로 제기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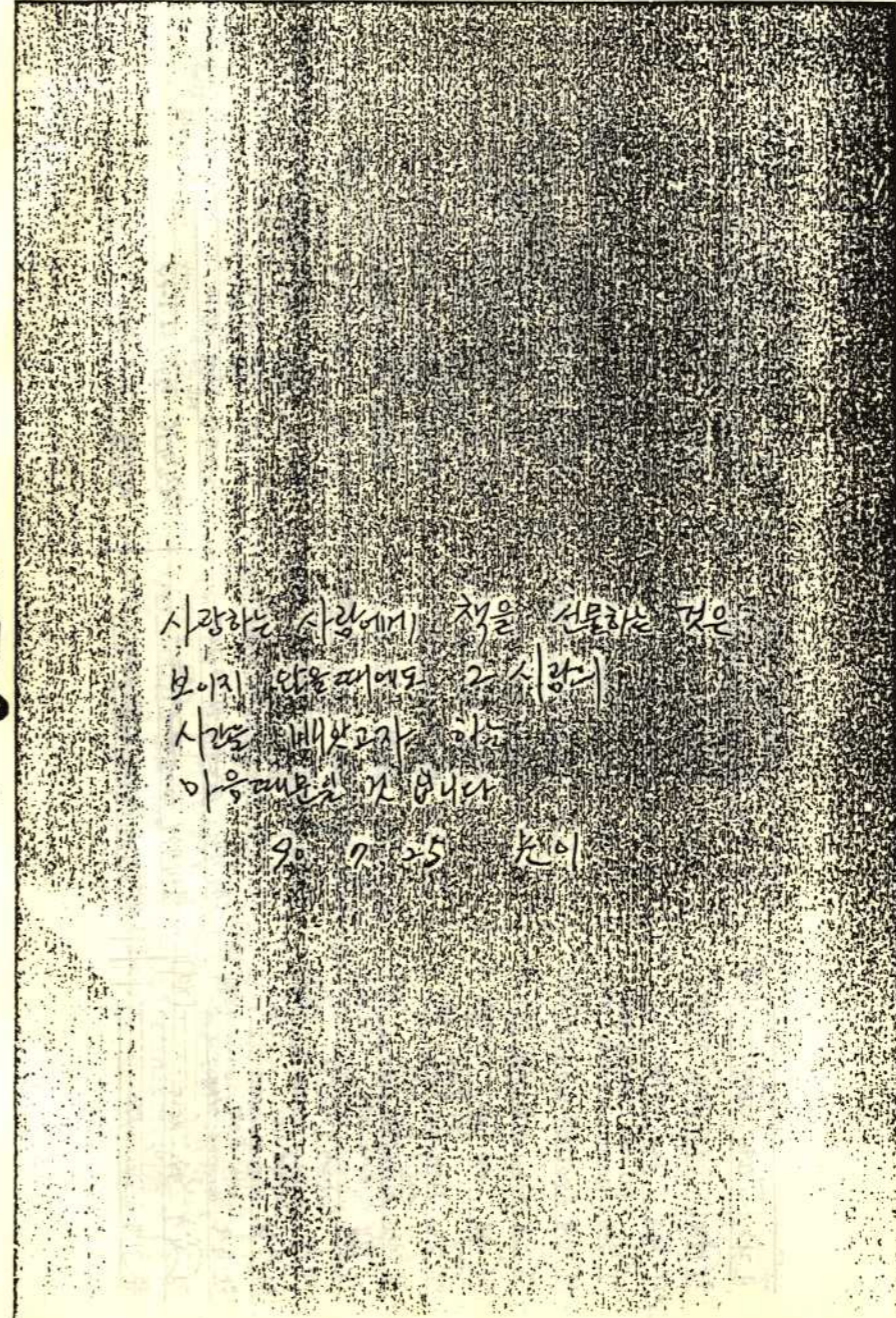
- (1) 내용상에 있어서 대중의 의식수준에 맞는가?
- (2) 시의적절한가?
- (3) 신문구상, 배움에 문제점은 없는가? 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러 했습니다. 그러나 위외 틀에 크게 구애됨 없이 작은문제 진행되었습니다.

- 1) 민중시대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고 했을 때 고유적인 기능을 다 해야 한다. 이것은 시트즈, 기획물의 강화를 통하여 극복해야 할 것이다.
- 2) 민중외담의 입장을 대중영식을 통해 건담하여 그 대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대중영식이란 건의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것의 활용(문화적인 내용, 시사)과 골가피류(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제시되었음.
- 3) 목적의 달성에 있어서 호소력과 공감감이 전바람되어야 한다. 예) 현대인(시습극이었다)

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쟁점과 이에 대한 민중외담의 해답은 우리의 입장이 건립적으로 표출되는 양반(노동자 대표를 국회로 1)과 대중에게 문제점을 던지면서 스스로 결론을 유도해내며 각구 민중외담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차원에까지

중계 17

중계 18



사랑하는 사람에게 책을 선물하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배양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90. 7. 25 원이

⑬ **각서**
 본인 김기실은
 한원석 기미 일출삼백만
 원은 2월 18일 자치회차까지
 납입합니다.
 민요 가지 못함으로
 어려운 처베틀 감수할것을
 약속합니다.
 1991. 2. 13
 김기실 대서

NOTE

자술서

본명: **홍남**

주소: **[redacted]**

생년: **한 원 석**, 주민등록번호: **[redacted]**

위 본인은 1991. 11. 18일 오후 2:00경 김기실과
 본인과 이등과 서로 부러 전차용 밧줄 2 개 김기실씨 유서
 때때사건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조한 바 앓은 김기실씨의
 태징이 대해 생명은 박탈받고 이등과씨를 모은
 이등과씨나 가지는 "각서" 제하의 관재이 본인이
 제조한 관재의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이후 제하
 생명은 해 주바 앓기 이후 제하 관위를 아미
 같이 진술합니다.

1. ("각서" 제하의 2 김기실 씨가 앓아 및 제하의 대해.
 본인이 또한 앓은 지내던 2 김기실씨에게 10년 11월경
 700 만원은 배려주바 앓는데 배려주 앓기 차등금으로
 앓은 아무런 관자금을 받지 앓았고, 또 김기실 약속하
 김기실 씨 또한 앓았을 상한하지 앓자 91. 2. 13 본인이
 김기실씨 앓은 각서 씨 주것을 관재이며, 2자내의
 자칭 김기실씨에게 각서씨 배려주 앓습니다. 당시 앓은
 장수는 김기실 사무관 관회의 동행관방은 앓 앓은 앓은
 앓은 관 배방 앓습니다.

NOTE

2. 두 번째로 이 각서를 보낸다는 약연증 인물을 통해
 91.5.8일 김기생씨의 부친사건에 관하여 김기생씨
 의뢰가 재발한 것을 알았고, 또 사문사지가 전이되면서
 이 사건의 책임자라는 것을 인물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에 보낸다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려 주중이내로 드디어
 당사자 또는 사건의 당사 명칭성상에서 농성 중이던
 사문사지를 91.6월 중순경에 찾아가 만났습니다.
 김기생씨를 만났는데 서로 "각서"를 보아주며 사정 이야기를
 나누고 사문사지에 "각서" 제작의 필요성을 진감하게
 되었습니다.

2. 보낸다는 두 번째 각서를 받은후 김기생씨가 반년간
 등을 상한채로 양자 91년 4월 29일 주지인
 사무관 김씨의 보충장에서 김기생씨를 만나 반년동안
 4월 29일 이후까지 상한채로 두 것을 재차 언급하
 였습니다.

상기 진술은 사실인 점을 인정합니다.

91. 11. 18

위 진술인

김기생



찾아보기

* /표시 뒤의 I, II, III은 총자로
 집 권수를 표시한 것임.

- KNCC 인권위 공문 접수 수사보고 / I 236
- Prisoner of Conscience Kang Ki-hun(amnesty international, 1993.1.) / III 931
- 감정의뢰(5월 21일) / I 207
- (5월 15일) / I 126
- (5월 21일) / I 207
- (5월 23일) / I 235
- (5월 27일) / I 288
- (5월 28일) / I 309
- (수첩 절취선 일치여부) / I 243
- (수첩절취선 감정에 대한 보충질의) / I 288
- (담배꽂초) / I 93
- 필적 감정의뢰(강력23110-016452) / I 467
-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5월 15일 / I 126
- 5월 17일 / I 165
- 5월 25일 / I 248
- 5월 29일 / I 312
- 5월 31일 / I 350
- 7월 4일 / I 520
- 감정의뢰 회보 접수보고(혈액 감정) / I 208
- 감정의뢰 회보(담배 꽂초) / I 210
- 감정의뢰, 감정회보 등 관련 비교내역표 / 변호인 / II 589
- 감정의뢰서(5월 10일) / I 75
- 감정회보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통보 / I 202
- 강기훈 거짓탐타지기 실시 동의 여부 / I 551
- 구속영장 / I 284
- 구속통지서 / I 432
- 모두진술 / II 75
- 피고인 보충신문 / II 621
- 범죄경력조회서 / I 124
- 변호인 접견 / I 468

- 상고이유서 / II 734
- 상고장(92.4.21.) / II 727
- 압수수색영장 / I 153
-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I 154
- 압수조서 수사보고 / I 109
- 자살방조사건 조사결과(검찰, 91.7) / I 567
- 자술서 / I 433
- 진술서 / I 470
- 진술서 / I 519
- 최후진술서 1. / II 289
- 최후진술서 2. / II 624
- 출국금지요청서 / I 186
- 출두 소환장 전달 수사보고 / I 200
- 피의자 신문조사 / I 453
- 피의자 신문조사 제2회 / I 462
- 피의자 신문조사 제3회 / I 476
- 피의자 신문조사 제4회 / I 484
- 피의자 신문조사 제5회 / I 500
- 피의자 신문조사, 제6회 / I 545
- 피의자 신문조사, 제7회 / I 556
- 학적 등 입수보고 수사보고 / I 116
- 항소이유서 / II 365
- 항소장 / II 345
- 강기훈이 써보인 김기설의 유서내용 / I 293
- 강효남 증인신문조서 / II 158
- 검증조서(김형영의 뇌물수수사건 기록, 92.3.27.) / II 445
- 검찰 공소장(자살방조) / II 27
 - 공소장(국가보안법) / II 33
 - 논고문(1심) / II 296
 - 논고문(2심) / II 627
 - 논고문(추가 의견서 제출, 92.4.9.) / II 695
 - 변호인 신문에 대한 이의신청 / II 587
 - 변호인 제출 필적감정 신청의견 / II 594
 - 변호인 증거에 대한 의견 / II 182
 - 자살방조사건 조사결과(91.7) / I 567
 - 참고자료 제출 / II 72
 - 참고자료 제출 / II 130
 - 참고자료(김형영 감정 공정성 검토결과 의견서) / 검사 / II 600
 - 참고자료(이창열의 공소장 및 판결문) 제출 / II 595
 - 항소이유서(92.2.18.) / II 355
 - 항소장 / II 345

- 고상만 증인신문조서 / II 211
- 공소장 (자살방조) / II 27
 - (국가보안법) / II 33
- 공판절차 재개신청/변호인, 92.4.13. / II 682
- 곽대순 진술서 / I 627
 - 진술조서 / I 627
- 구속기간 연장결정서 / II 30
- 구속영장 / II 28
-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목록 / II 91
- 국과수 감정결과를 배척 무죄선고/변호인 제출자료 5 / II 671
- 국과수 장비사진 설명/양후열 / II 558
- 국과수 훈령·예규집/국과수 사무분장규정 / II 669
- 권범재 증인신문조서 / II 425
- 권범재가 상황일지에 표시한 김기설 필적 / II 433
- 권범재가 표시한 수첩복사 부분 / II 431
- 권영호 진술조서 / I 55
- 김기설 검시조서 / I 34
 - 압수수색영장 / I 41
 - 압수수색영장 하숙방 / I 42
 - 유류품 압수조서 / I 40
 - 유아책자 글씨 압수조서 / I 74
 - 이력서 압수조서 / I 215
 - 자취방 수색 수사보고 / I 79
 - 자취방 압수조서 / I 75
 - 전민련 수첩 압수조서 / I 202
 -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압수조서 / I 43
 - 열사 장례식 안내문 / I 88
- 김문정 진술서 / I 113
- 김병희 증인신문조서 / II 216
 - 진술서 / I 496
 - 진술조서 / I 498
- 김선택 임의동행 실패 / I 440
- 김시중 증인신문조서 / II 149
- 김점렬(김기설 고모) 진술조서 / I 633
- 김정열 증인신문조서 / II 103
 - 진술서 / I 634
- 김지연 자술서 / I 382
- 김진수 탐문(수사보고) / I 439
- 김현수 진술서 / I 510
 - 진술조서 / I 513
 - 탐문(수사보고) / I 439

- 김형민 진술서(제1회) / I 505
- 진술서(제2회) / I 507
- 김형영 공동명의 논문, 91.10.23.) / II 143
- 증인신문조서 / II 113
- 증인신문조서 / II 135
- 증인신문조서 / II 559
- 필적 이동비율에 대한 자료(91.11.15.) / II 185
- 대전지법 증인신문(이익주)/변호인 제출자료 7-2 / II 674
- 대표 변호인 선임서 / II 48
- 민수진 자술서 1회 / I 372
- 진술서 2회 / I 380
- 민원서 송부(예장 총회 명의, 1991.8.30.) / II 79
- 민원서 송수(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명의) / II 47
- 박경민 자술서 / I 116
- 증인신문조서 / II 193
- 박세용 진술서 / I 215
- 박찬수 증인신문조서 / II 156
- 방수연 탐문(수사보고) / I 438
- 범죄인지서 / I 23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품신(서면) / I 29
- 변사자 김기철 일건수사기록 입수 수사보고 / I 25
- 변호인 검찰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91.9.20.) / II 92
- 검찰증거에 대한 의견(91.9.25.) / II 101
- 녹취허가 신청 / II 48
- 모두진술 / II 75
- 변론요지서(1심) / II 258
- 변론요지서(항소심) / II 636
- 보석청구서 / II 33
- 상고이유 보충서(92.7.13.) / II 750
- 상고이유서(92.6.17.) / II 742
- 선임신고서(1심) / II 30
- 선임신고서(2심) / II 345
- 증거제출(필적자료, 91.10.23.) / II 144
- 증인신청 1심 / II 145
- 참고자료 제출 / II 308
- 필적증거 자료 / II 791
- 항소이유서 / II 357
- 항소장 / II 345
- 보석청구서(변호인) / II 33
- 보석청구에 대한 결정(서울지법 제25부) / II 34
- 상고이유 보충서(변호인, 92.7.13.) / II 750

- 상고이유서(강기훈, 92.6.) / II 734
- (변호인, 92.6.17.) / II 742
- 상고장(강기훈, 92.4.21.) / II 727
- (변호인, 92.4.22.) / II 727
- 서기선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검사, 92.4.16. / II 696
- 서준식 증인신문조서 / II 200
- 서준식(참고인) 등 출석요구 불응 수사보고 / I 199
- 송국영 자술서 / I 122
- 송주수 진술조서 / I 56
- 수사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검찰제출 필적자료 / I 638
- 수사조서(참고인 주소 확인) / I 85
- 수사협조 공문 전민련에 전달 수사보고 / I 200
- 수사협조 의뢰 / I 208
- 수사협조 의뢰(김기철 수첩 제출 요구) / I 199
- 시필에 부적합성 문헌/양후열 / II 558
- 신문자료 모음 / III 537
- 실황조서(김기철 집 등) / I 77
- 안혜정 제출필적 압수조서 / I 235
- 안혜정 증인신문조서 / II 533
- 안혜정이 필적 제공 수사보고 / I 229
- 압수물건총목록 / I 4
- 압수조서(85년 강기훈 진술서) / I 109
- 양후열 제출의 장비 사진 / II 523
- 양후열 증인신문조서 / II 544
- 업무일지 압수조서 / I 85
- 업무일지 제출 확인서 / I 80
- 연대 유류품 소재지 압수수색영장 / I 42
- 오니시 요시오 필적감정 결과(91.7.18) / I 574
- 오오니시 오시오에 대한 인적사항, 검찰, 91.10.23.)
- 오오니시 요시오 증인신문조서 / II 231
- 증인신문조서 / II 250
- 원순용 탐문수사(수사보고) / I 441
- 윤석순(홍성은 모) 진술서 / I 631
- 윤여덕 진술조서 / I 50
- 이 정 자술서 / I 443
- 진술조서 / I 444
- 이동진 진술서 / I 515
- 증인신문조서 / II 212
- 이보령 증인신문조서 / II 187
- 진술서 / I 371
- 진술서 제2회 / I 371

진술서 제2회 보충 / I 372
 진술서 제3회 / I 380
 이보은 동행 실패 수사보고 / I 359
 동행불능(수사보고) / I 440
 자술서 / I 489
 증인신문조서 / II 414
 진술조서 / I 492
 탐문(수사보고) / I 469
 이세용이 의뢰한 이익주의 감정서/변호인 제출자료 7-1 / II 674
 이영미 압수수색영장 / I 159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 I 160
 증인신문조서 / II 196
 진술서 / I 163
 진술서 / I 183
 진술조서 / I 193
 이영수 증인신문조서 / II 618
 이재구 증인신문조서 / II 96
 진술조서 / I 94
 이종원 동행보고(수사보고) / I 466
 진술서 / I 466
 이지혜 소재파악(수사보고) / I 438
 자술서 / I 122
 증인신문조서 / II 398
 이창욱 진술조서 / I 62
 이효경 증인신문조서 / II 226
 임 모 탐문(수사보고) / I 453
 임근재 탐문(수사보고) / I 442
 탐문(수사보고) / I 486
 임무영 검거 실패(수사보고) / I 440
 검거 실패(수사보고) / I 486
 소재파악(수사보고) / I 453
 임무영 증인신문조서 / II 208
 진술조서 / I 543
 임철수 소재파악(수사보고) / I 429
 자취방 주인 강병숙 진술조서 / I 86
 장병호 증인 불출석 사유서 / II 93
 증인신문조서 / II 109
 진술조서 / I 72
 장준호 탐문(수사보고) / I 469
 탐문(수사보고) / I 470
 재판부에 의한 검사측 신문제한 내용 / II 588

재판부에 의한 변호인측 신문제한 내용 / II 587
 전현철 진술서 / I 623
 진술조서 / I 623
 정삼정 진술조서 / I 53
 정윤서 자술서 / I 508
 정일부 증인신문조서 / II 161
 정재오 진술조서 / I 59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입수 수사보고 / I 43
 중앙인명필적감정원 신찬석 압수수색영장 / I 200
 증거목록 / II 48
 증거목록 제출 / II 검사 / II 592
 증거목록(김형영의 뇌물수수사건 기록, 92.3.27.) / II 446
 (서울고등법원, 검사신청) / II 16
 (서울고등법원, 피고인 및 변호인 신청) / II 24
 (서울형사지방법원, 검사신청) / II 6
 (서울형사지방법원, 변호인신청) / II 18
 증거목록기록 / II 448
 증거법의 원칙에 관한 판례/변호인 제출자료 6 / II 672
 증거신청 / II 변호인 / II 383
 증거자료(신문기사) 제출/검사 / II 594
 증거제출(1991년 분신·투신사건 관련 신문기사)제출/검찰 / II 444
 증거제출, 전화가입자에 대한 사실조회/검사 / II 669
 진정서[천주교 대교구 정평위(91.5.15) · 이일규(91.6.24.)] / II 80
 참고인 진술조서 및 사체검안서 입수보고 / I 36
 참고자료/김형영/II 310
 참고자료 제출, 공판절차 재개신청에 대하여/검사, 92.4.14. / II 687
 참고자료(5.24 중앙일보) 제출/검사 / II 594
 참고자료(김형영 감정 공정성 검토결과 의견서) 제출/검사 / II 600
 참고자료(이창열의 공소장 및 판결문) 제출/검사/II 595
 최경환 증인신문조서 / II 220
 최규성 진술서 / I 201
 최수미 자술서 / I 376
 2회 자술서 / I 381
 최재인 임의동행 실패(수사보고) / I 476
 자술서 / I 559
 진술조서 / I 560
 탐문수사(수사보고) / I 441
 추가의견서(논고문) 제출/검사, 92.4.9. / II 695
 통역인 신문조서/허초 / II 226
 판결문 1심 / II 321
 고등법원 / II 707

대법원(92.7.24.) / II 777

포장마차 주인 양경숙 진술조서 / I 49

표홍철 검거실패(수사보고)/I 442

표홍철(참고인) 등 불출석 수사보고 / I 124

피고인 보충신문 / II 621

필적 감정의회(강력23110-016452) / I 467

필적 이동비율에 대한 자료(김형영, 91.11.15.) / II 185

필적감정 회보 및 감정서(91.7.4) / I 520

한송흙 증인신문조서 / II 387

한원석 증인신문조서 / II 612

항소이유서(강기훈, 92.2.) / II 365
(검찰, 92.2.18.) / II 355
(변호인) / II 357

항소장(강기훈) / II 345
(검사) / II 345
(변호인) / II 345

현장검증조서 / I 33

형기종료일자 확인(수사보고)/I 553

홍성은 모 편지 / II 609

홍성은 압수수색영장 / I 235
자술서 / I 160
자술서 / I 178
자술서 2 / I 163
자술서,1회 / I 98

제출 압수조서 / I 107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 / I 96

증거보전신청 재판(1991.5.17.) / I 187

증인소환 철회요청서(홍성은·윤석순, 91.10.19.) / II 133

증인신문조서 / II 165

증인신문조서(재판기일전 증인신문) / I 188

진술조서 / I 99

진술조서 제2회 / I 178

진술조서 제3회 / I 282

책 압수조서 / I 96

각 공판 조서

1회 공판조서 / II 54

2회 공판조서(1심 2회공판, 91.9.11.) / II 86

3회 공판조서 / II 94

3회 공판조서 533

4회 공판조서 / II 102

4회 공판조서 / II 609

5회 공판조서 / II 134

5회 공판조서 / II 611

6회 공판조서 / II 148

6회 공판조서 / II 706

7회 공판조서 / II 164

8회 공판조서 / II 186

9회 공판조서 / II 225

10회 공판조서 / II 248

11회 공판조서 / II 257

증거자료

검찰제출 기타 필적자료

증제 4-90 영어노트 표지(강기훈) / I 639

증제 7-1 수첩(홍성은) / I 640

증제 9-1 수신 김정훈 발신 김명훈 / I 652

증제 9-6 수강신청서(강기훈) / I 653

증제 9-8 낙서(강기훈) / I 654

증제 9-9 화학노트(강기훈, 일부수록) / I 656

증제 9-10 사투의 의의(강기훈, 일부수록) / I 660

증제 9-16 What is(강기훈, 일부수록) / I 662

증제 9-23 자주민주통일수첩(강기훈) / I 666

증제 9-25 전화번호수첩(강기훈) / I 693

증제 9-111~116 혁노맹 재건대회 의사록(일부수록) / I 702

증제 9-117 생일축하카드(강기훈) / I 706

증제 9-125 혁노맹 창건설언문 초안 / I 707

증제 9-126 Two Tac(강기훈, 일부수록) / I 712

증제 11-1 수첩(전민련 제출) / I 717

증제 12-5 대학노트 / I 777

증제 12-6 알림종이 / I 782

변호인 제출 증거자료

증제 1 터사랑 청년학우회 창립대회 방명록(김기설) / II 791

증제 2 이력서(김기설) / II 792

증제 3 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김기설) / II 793

- 증제 4 대유공전 원고(김기설, 일부수록) /II 794
- 증제 5 승의여전 메모(김기설) /II 798
- 증제 6 출장비 청구서(김기설) /II 799
- 증제 7 성남민청련 상황일지(김기설등) /II 800
- 증제 8 녹취록(김기설 등) /II 811
- 증제 9 속초동우전문대 자료 봉투(김기설) /II 822
- 증제 10 수원민청련 창립대회 방명록(김기설) /II 823
- 증제 11 한국사회의 자본론강의 책 표지(김기설) /II 824
- 증제 12 속초동우전문대·청주서원대 필적(김기설) /II 826
- 증제 13-1,2 명함(김기설), 고상만 진술서 /II 829
- 증제 13-1 명함(김기설) /II 827
- 증제 13-2 박동희 자술서 /II 828
- 증제 15-1~10 강기훈 옥증편지 /II 830
- 증제 16-1,2 강기훈 연하장 /II 850
- 증제 17 민중당 성동지구당 보고서(강기훈) /II 854
- 증제 18 장미의 이름 책속 메모(강기훈) /II 855
- 증제 20-2 5/8 수첩복사본(최경환 제출) /II 858
- 증제 20-1 5/8 수첩복사본(이효경 제출) /II 856
- 증제 23-1,2 각서(김기설) 및 한원석 자술서 /II 860

국과수 검증시 제출자료

- 증제26의 1, 감정문서접수대장 /II 506
- 증제26의 2, 문서감정처리부 /II 515
- 증제26의 3, 발송대장 /II 450
- 증제26의 4-1, 문서감정서철 표지 /II 457
- 증제26의 4-2, 색인목록 /II 459
- 증제26의 4-3, 기안용지(1991.8.3.) /II 460
- 증제26의 4-4, 감정서(1991.8.3.) /II 461
- 증제26의 4-5, 감정의뢰(1991.7.24.) /II 464
- 증제26의 4-6, 기안용지(1991.7.4.) /II 466
- 증제26의 4-7, 감정서(1991.7.4.) /II 467
- 증제26의 4-8, 감정의뢰(1991.6.27.) /II 470
- 증제26의 4-9, 기안용지(1991.5.29.) /II 472
- 증제26의 4-10, 감정서(1991.5.29.) /II 473
- 증제26의 4-11, 감정의뢰(1991.5.21.) /II 478
- 증제26의 4-12, 감정의뢰(1991.5.28.) /II 480
- 증제26의 4-13, 보충질의(1991.5.27.) /II 481
- 증제26의 4-14, 감정의뢰(1991.5.27.) /II 482
- 증제26의 4-15, 기안용지(1991.5.25.) /II 483
- 증제26의 4-16, 감정서(1) (1991.5.25.) /II 484
- 증제26의 4-17, 감정서(2) (1991.5.25.) /II 487

- 증제26의 4-18, 절취선 일치여부 의뢰(1991.5.24.) /II 488
- 증제26의 4-19, 감정의뢰(1991.5.23.) /II 489
- 증제26의 4-20, 감정의뢰(1991.5.21.) /II 491
- 증제26의 4-21, 감정의뢰(1991.5.25.) /II 492
- 증제26의 4-22, 기안용지(1991.5.17.) /II 494
- 증제26의 4-23, 감정서(1991.5.17.) /II 495
- 증제26의 4-24, 감정의뢰(1991.5.15.) /II 498
- 증제26의 4-25, 기안용지(1991.5.15.) /II 499
- 증제26의 4-26, 감정서(1991.5.15.) /II 500
- 증제26의 4-27, 감정의뢰(1991.5.13.) /II 504
- 증제26의 4-28, 감정의뢰(1991.5.10.) /II 505

김형영 등 뇌물수수사건 관련자료

- 증제27의 1 수사기록 표지 /III 163
- 증제27의 2 수사기록목록 /III 163
- 증제27의 3 문화방송보관 테이프 녹취내용 /III 165
- 증제27의 4 진술조서(조병길) /III 166
- 증제27의 5 녹취서(조병길 신찬석·이송운) /III 172
- 증제27의 6 녹취서(조병길 / 신찬석·이송운) /III 174
- 증제27의 7 녹취서(조병길 / 신찬석) /III 182
- 증제27의 8 녹취서(조병길 / 신찬석·이송운) /III 193
- 증제27의 9 녹취서(조병길 / 신찬석·이송운) /III 197
- 증제27의 10 진술조서(안재국) /III 209
- 증제27의 11-1 수사보고 /III 214
- 증제27의 11-2 필적감정의뢰 회보 /III 214
- 증제27의 11-3 감정서 /III 215
- 증제27의 12 피의자 신문조서(이인환) /III 240
- 증제27의 13 진술조서(고원배) /III 252
- 증제27의 14 진술조서(신찬석) /III 253
- 증제27의 15 감정서(중앙인영감정원) /III 259
- 증제27의 16 피의자 신문조서(이송운) /III 266
- 증제27의 16 피의자 신문조서(이송운) /III 268
- 증제27의 18 공소장 /III 274
- 증제27의 19 피의자 신문조서(이세용) /III 279
- 증제27의 20 피의자 신문조서(양종석) /III 283
- 증제27의 21 피의자 신문조서(신찬석) /III 287
- 증제27의 22 피의자 신문조서(양승호) /III 291
- 증제27의 23 감정서(김형영) /III 298
- 증제27의 24 감정서(김형영) /III 309
- 증제27의 25 문서분석실 인원조정, 직제개정안(김형영) /III 313
- 증제27의 26 피의자 신문조서 1회 (김형영) /III 315

- 증제27의 27 피의자 신문조서 2회(김형영) /III 321
- 증제27의 28 피의자 신문조서 2회(이인환) /III 323
- 증제27의 29 진술조서(양후열) /III 325
- 증제27의 30 피의자 신문조서 3회(이인환) /III 327
- 증제27의 31 감정서(김형영) /III 330
- 증제27의 32 피의자 신문조서 2회(이송운) /III 334
- 증제27의 33 피의자 신문조서 3회(이송운) /III 335
- 증제27의 34 피의자 신문조서 2회(신찬석) /III 337
- 증제27의 35 피의자 신문조서 2회(양종석) /III 341
- 증제27의 36 피의자 신문조서 3회(김형영) /III 343
- 증제27의 37 피의자 신문조서 2회(이세용) /III 348
- 증제27의 38 피의자 신문조서 4회(이인환) /III 351

잡지 기사

- 강기훈씨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전모(월간 「인권」, 1992.4.) /III 903
- 강기훈을 유죄로 만든 판검사들(월간 「말」, 1992.9.) /III 891
- 강기훈의 옥중편지/"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월간 「말」, 1992.4.) /III 891
- 나의 '유서사건' 1년(서준식, 살림, 1992.6.) /III 910
- '명동신화' 사라지는가/인른 상업주의에 부추겨진 필적공방(시사저널, 1991.6.6.) /III 875
- 유서대필사건' 재판기(이석태, 경제정의, 1992.3.4.) /III 897
- 이 나라의 인권 자화상, 강기훈(서준식, 북음과 상황, 1992.10.) /III 923
- 지적 선정주의를 파는 지식인 스타들(월간 「말」, 1991.7.) /III 889
- 한국판 트레퓔스사건, 유서공방의 진실(월간 「말」, 1991.7.) /III 883

필적관계 논문

- Eldctrostatic Detection Apparatus(ESDA)による 不明文字の検出 /III 129
- Signatures Review and a New View /III 138
- 문서감식의 연구 /III 3
- 미성년자 필적에 관한 연구 /III 125
- 불명문자 현출에 대한 연구 /III 106
- 아라비아 숫자의 운필형태와 개인별 특성에 대한 연구 /III 121
- 한글의 운필형태분류와 회소성에 대한 연구 /III 115
- 화상처리를 이용한 필자식별에 관한 기초적 연구(번역본) /III 151
- 화상처리를 이용한 필자식별에 관한 기초적 연구(일어) /III 143

수탁된 각종 심명서

- KNCC 인권위 진상보고서(91.6.15) /I 389
- 강기훈 사건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91.5.27) /I 292
- 검찰기소에 즈음하여(KNCC 인권위 91.7.10) /I 555
- 검찰에 협조요청(KNCC, 1991.5.31) /I 353
- 검찰은 피의자 권리를 존중하라(변호인단, 91.6.24) /I 465

- 검찰의 왜곡수사 방침에 대한 전민련의 규탄성명서 /I 48
- 고 김기설 동지 분신항거에 대한 입장(전민련) /I 46
- 고 김기설 동지의 분신항거에 대한 검찰의...(전민련)/I 47
- 공개수사를 촉구하며(천주교 사제단, 91.6.11) /I 368
- 구속기소에 대한 입장(전민련, 91.7.13) /I 572
-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단국대 민주동문회, 91.5.25.) /I 281
- 기자회견문(명동성당, 전민련, 91.5.21.) /I 213
- 김기설 수첩 내용 주석(전민련, 1991.5.27) /I 295
-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내는 글(서준식, 91.6.15) /I 388
-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낸 편지(강기훈, 1991.5.29) /I 339
- 날조조작의 의도와 대응(전민련, 1991.5.30) /I 344
- 더 이상의 날조조작 중단하고...(전민련, 91.5.24) /I 245
- 보도자료(전민련, 91.5.22.) /I 219
- 분신을 선동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니요!!(서강대 사학과 학생회) /I 71
- 사제단의 대응경위(천주교 사제단 91.6.15) /I 420
- 서울지검에 공개수사협조요청서 발송(KNCC, 91.5.23.) /I 241
- 성명서(KNCC, 91.5.23.) /I 242
- 왜곡날조에 대한 정의의 투쟁을 선언한다(전민련, 91.5.27.) /I 293
- 유서대필 조작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민련, 91.5.20) /I 206
- 자진출두에 즈음하여(강기훈, 91.6.24) /I 451
- 전민련 논평(1991.5.28) /I 311
- 전민련에 협조요청(KNCC, 1991.6.1) /I 354
- 정부 및 검찰의 왜곡날조...(법국민대책회의) /I 69
- 천주교 정평위에 보낸 글(서준식, 91.6.19) /I 426
- 추기경 면담요청서(서준식, 91.6.9) /I 363
- 필적감정결과 설명회(KNCC 91.7.22) /I 626

Appeal on behalf of Kang Ki-hun(amnesty international, 92.4.) /II 728

-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400인 선언(92.4.16.) /II 699
- 검찰은 은폐해온 고 김기설씨의 필적을 공개하고...(공대위, 92.4.13.) /II 685
- 검찰의 감정비리사건 축소은폐수사를 규탄(9개단체, 92.2.18.) /II 351
- 검찰의 축소·은폐수사를 규탄한다(강기훈 공대위, 92.2.24.) /II 354
- 국과수 허위감정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16개 단체, 92.2.14.) /II 350
- 기자회견문:강기훈 공대위 결성에 즈음하여(92.2.24.) /II 353
- 논평:대법원의 판결을 보며(정의구현전국사제단, 92.7.24.) /II 788
- 성명서(KNCC 인권위, 91.12.20.) /II 343
- 성명서(강기훈 공대위, 92.4.20.) /II 726
- 성명서:강기훈 상고심 기각에 대하여(KNCC 인권위, 92.7.24.) /II 789
- 성명서:국과수 허위감정사건에 대한 입장(KNCC, 92.2.12.) /II 347
- 성명서:김형영씨 석방에 대한(KNCC 인권위, 92.9.14.) /II 790
- 성명서:범죄자는 ... 검찰과 법원이다(강기훈 공대위, 92.7.24.) /II 787

- 유서사건 공정재판 촉구(92.4.15.) /II 704
- 재판부에 보내는 공개서한(강기훈 공대위, 92.3.11.) /II 372
- 탄원서(일본 기독교교회협의회, 92.7.16.) /II 776
- 탄원서(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92.7.21.) /II 776
- 허위감정 제보자 조병길씨 법정구속에 대한 논평(전민련, 92.2.20.) /II 352
- 강기훈씨 추가기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민련, 1991.8.22.) /II 46
- 검찰은 ... 변호인에 대한 압력을 철회하라(변호인단, 91.7.5) /II 36
- 성명서:1심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전민련, 91.12.20.) /II 342
- 성명서:강기훈씨 1차공판에 즈음하여(KNCC 인권위, 1991.8.28.) /II 53
- 성명서: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 (KNCC 인권위, 91.12.5.) /II 319
- 성명서:이번 재판은~(전민련·후원회, 91.8.28.) /II 77
- 진정서:목회자연명 (예장 강기훈 대책위 인권위) /II 320

기타자료 소식지

- 강기훈 부장을 즉각 석방하라(재판투쟁 속보 준비회) /III 479
- 김형영 뇌물사건 신문모음 /III 353
-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의 승리입니다 /III 501
- 재판투쟁 속보 1호 /III 483
- 재판투쟁 속보 2호 /III 491
- 재판투쟁 속보 3호 /III 493
- 재판투쟁 속보 4호 /III 497
- 진실은 승리한다(회보시작지 1호) /III 445
- 진실은 승리한다(회보시작지 2호) /III 471

『유서사건 총자료집』 제II권 공판기록

1993년 7월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